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5년 9월 21일(월) 조간
담당자	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(044-550-4098, hisamkim@kdi.re.kr)
배포일시	2015년 9월 18일(금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2015년 하반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이동성과 창의성: 구조개혁의 키워드

- 일 시: 2015년 9월 18일(금) 17:10~18:10
- 장 소: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에메랄드홀(B2F)
- 주 최: KDI · 기획재정부

- KDI는 9월 18일 '이동성과 창의성: 구조개혁의 키워드'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, 우리 사회·경제 위기는 '이동성'과 '창의성'의 위기임을 밝히고, 이의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모색
 - 청년층의 좌절과 기업 수익성 하락 이면에는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'이동성' 저하와 요소의 고부가가치 결합을 위한 '창의성'의 한계가 있음을 간파할 필요
 - 이번 세미나에서는 '이동성'과 '창의성'을 구조개혁의 키워드로 제안,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 특히 향후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성숙에 필수불가결한 교육개혁의 지향점 및 추진 전략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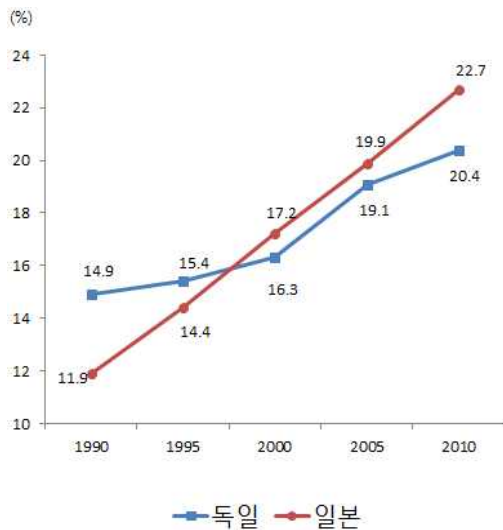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청년 취업난 속에서 사회 이동성에 관한 비관론 확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어, 구조개혁의 시계를 넓게 설정할 필요

- 청년 취업난은 일부 단기적 요인(정년연장과 에코세대 진입)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으나, 글로벌 요인(중국 효과, 산유국 소비 등)의 변화 속에 드러난 우리 경제의 내재적·구조적 취약점의 방증
- 향후 청년인구 감소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성장 잠재력의 상실과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를 간과한 낙관론이며 오히려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위험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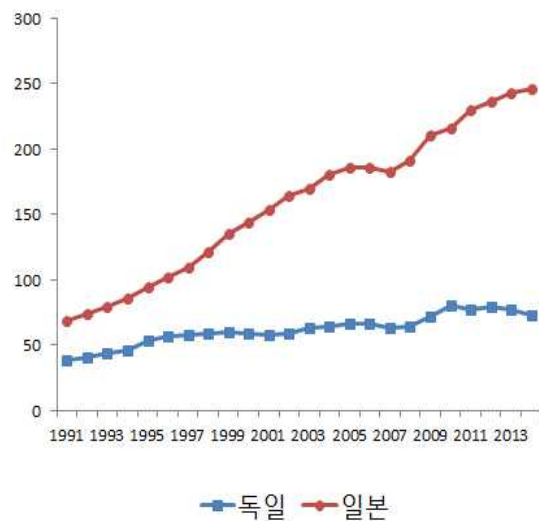
□ 우리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, 일본·이탈리아처럼 정체·퇴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기로에 서있음.

-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점유율 하락의 위기에 대응, 독일은 일본과 달리 구조개혁, 이민노동력 수용, 재정건전성 견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궤도로 서행 중이며, 싱가포르·홍콩도 순항 중

< 고령 인구 비율 >



<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>



□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이 고부가가치 성장의 비결이나, 한국은 '이동성'의 함정과 '창의성'의 장벽에 부딪힘.

○ '이동성(mobility)'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사용을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을 포괄하는 개념

- 기업 생태계 역동성 저하, 기업 구조조정 지연,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, 사회 이동성 저하 등은 물질·인적자본의 낮은 이동성의 증거

- 이동성 제고를 위해 ① 좀비기업 연명보다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는 기업 구조조정, ② 소수 과보호를 해소하고 해고·파업의 쌍방 공포를 완화하며 재훈련·전직을 촉진하는 고용 유연성 제고, ③ 한정된 토지를 보다 생산적 활용이 가능한 주체가 이용하게 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, ④ '치장술'보다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입 균형선발과 천부적 능력의 만개를 지원하는 아동기의 조기개입, ⑤ 스펙·연공·연줄을 타파하는 능력중심 인사정책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

○ '창의성(creativity)'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아이디어를 포괄하는 개념

-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차세대 전략산업도 중국과 겹치는 상황에서 갈 길을 모르는 경제주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창의성

□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'개방'과 '자유화'를 통한 요소활용의 효율화와 소통 및 리더십이 필요

○ '개방'은 경쟁(팀내 협동)을 통한 경쟁력 배양, 이종교배를 통한 학습과 우성인자 창출, 정보공개를 통한 규율 등을 포괄

○ '자유화'는 요소의 이동과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, 진입장벽을 허물어 지대추구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

-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'소통'이 필수적이며, 공공심과 진정성을 지닌 개혁주체의 '리더십'이 무엇보다 중요

□ **국민적 염원이자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초당적 목표 하에 구현할 필요**

- 사회 이동성의 사다리를 복원하고, 향후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창의성을 자극·확산하며, 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신뢰, 시민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개혁이 필수불가결
 - 현재의 교육은 계층 대물림의 통로이고, 창의성 발현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, 삶의 질 저하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'통일된 국론'에도 교육 개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넘어 '적절성' 위기에 처한 교육에 미래인재 양성의 사명을 부여하고, 교육 관련 자원배분 왜곡의 정상화에 개혁을 집중할 필요
 - 대입 직전까지만 집중되는 교육자원, 고학력 청년 창업의 교육 서비스업(학원) 집중(미국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집중), OECD 최하위권의 총 투입시간당 점수, OECD 최고의 전공 불일치 발생률, 1/3~1/2이 자고 있는 교실 등이 보여주는 우리 교육은 적절성(존재가치)의 위기에 빠져 있음.
 - 창의성 경쟁의 본격화와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 증대를 배경으로 기업인재상과 민주시민상이 통합된 상황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의 초당적 연대추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.
 -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창의·인성·공정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혁(기업가정신 교육 등)과 교수법의 혁신(사회적 구성주의, 프로젝트 기반학습, '거꾸로 교실' 등)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개방(교직 개방으로 급변하는 교육수요 충족), 자유화(교사에게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율권 부여) 및 다양화(중등교육 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로 적성·진로계획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과정)와 이에 부합하는 대입전형과 대학구조개혁이 요구